

# “북부·남부 지역별 시너지 효과 내는 것이 꿈”

**김동연, 북부자치도 민관합동추진위 참석**  
“평화경제특구법 통과로 터전 마련돼”  
이철휘 사령관 등 추가위원 14명 위촉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저의 꿈은 경기 북부와 남부가 함께 균형발전 하고 각 지역이 각 특성에 맞게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런 꿈을 이룰 수 있는 펀더멘탈 베이스 중 하나가 북부특별자치도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평화경제특구법이 통과돼 북부 발전을 위한 좋은 터전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힘을 모아주시면 400만 가까운 북부 도민을, 1500만 가까운 남부 도민과 함께 이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날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추가 위원 1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추가 위원은 ▲이철휘 전 육군 제2작전사령관 ▲김성수 포럼K비전 대표 ▲이용길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임진홍 에스

그림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강대희 서울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엄홍길 임흥길휴먼재단 상임이사 ▲염재호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이원희 한경대학교 총장 ▲이영주 도의원(양주1) ▲최병선 도의원(의정부3) ▲조성환 도의원(파주3) ▲이인규 도의원(동두천2) ▲최병갑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이다.

이들은 기존 11명 위원과 함께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 자문, 간담회, 토론회 등 현장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본인 전문 분야를 활용해 홍보에도 적극 힘을 기울인다.

이유림 기자



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위촉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신규위원들에게 위촉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경과원, 성장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 만들기 앞장 선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일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이 ‘성장의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 만들기’ 도민보고회에서 경과원의 새로운 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제공

**도민보고회 열고 ‘GBSA 2.0’ 설명**  
초일류 경영혁신 등 4대 전략 추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1일 ‘성장의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 만들기’라는 주제로 도민보고회를 개최해 새로운 비전과 미션을 보고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

보고회는 수출부진, 무역수지 적자 지속, 1%대 경제 성장률 전망 등 경제 약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경과원의 ‘GBSA 2.0’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과원은 “새로운 미션은 ‘성장의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 이를 위한 비전은 ‘기업의 혁신 동반자, GBSA’”라고 밝혔다.

경과원은 디지털전환의 가속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며 조직 변화를 시도하는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경과원은 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 성장산업 육성, 역동적 혁신생태계 조성, 글로벌 경쟁력 강화, 초일류 경영혁신 추진 등 4대 전략을 실현할 방침이다.

강성천 원장은 이날 “경과원을 새로운 조직, 새로운 미션, 새로운 비전 하에 ‘GBSA 2.0’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달 24일 경과원은 ▲민선8기 핵심공약 이행 ▲미래 신산업 육성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강화 등을 위한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유림 기자

## “아과도 위약금 때문에 폐점 못 해... 계약 해지 개선안 마련해야”

도, 가맹점 갈등 해결 간담회 개최  
관계자·전문가 함께 현황·대책 논의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가맹계약해지 갈등 현황 및 개선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도 과도한 위약금 부담으로 계약 해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를 고려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달 31일 가맹계약해지 갈등 현황 및 개선안 논의를 위한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가맹본부의 계약 해지권은 가맹사업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가맹점사업자의 해지권은 별도 규정 없이 계약당사자 간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체결 시 가맹점주가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 중도 해지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금액, 즉 위약금을 미리 정하고 있다.

특히 가맹계약 특성상 이는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작성해 배포해 가맹점주 중도해지 사유가 반영된 경우가 드물지만 가맹점주가 계약서 내용을 수정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이에 가맹점주는 자연재해, 질병·사고 등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사업 지속이 어려운 상황에도 과도한 위약금을 부담하고 폐점하거나 큰 손해를 감수하고 영

업해야 하는 실정이다.

가맹점주 A씨는 매장 주변에 경쟁업체가 들어서며 매출이 급감하고 뇌물중, 뇌경색이 발병해 점포를 운영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자 폐점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가맹본부는 A씨가 감당하기 힘든 위약금을 청구했고 A씨는 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서흥진 인턴 공정거래지원센터 팀장은 “이런 상황에서 위약금은 가맹점주에게 이중 고통을 주고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를 부당하게 압박해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제도개선을 주장했다.

정종열 전국가맹점주 협의회 사무위원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경제적 공동 운명체임에도 가맹본부의 과도한 수익추구로 인한 수익배분 구조의 역관계 형성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약금의 합리적인 산정 기준 설정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와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사무총장은 “과도한 위약금·위약벌은 사법절차를 통해 감액 또는 무효화할 수 있고 불가피한 사유의 판단은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실행 조치 등에 반영해 가맹점사업자들의 권리구제 제도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사유로 계약 해지 시에도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한 거래로 볼 여지가 있다”며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행위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 희망 자영업자들은 전화(031-8008-5555), 방문, 전자우편(fairtrade@gg.go.kr), 우편(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유림 기자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상생 토크 콘서트에서 건설 파트너들과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GH 제공

## GH, ‘타운 매니지먼트’로 발돋움

건설 파트너와 ‘상생 토크 콘서트’  
공정·인권·혁신·품질 4대 가치 설정  
김세용 사장 “스마트한 기술 선도”

대재해 감축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60% 초과집행 정착, GH 건설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 마련 등을 목표로 삼았다.

‘혁신’ 부문은 새로운 미래 도시공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제로에너지 빌딩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일 공공기관의 신뢰 회복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책임지고 건설 분야 10개 실천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건설 파트너와 함께 상생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 열린 토크 콘서트에는 대우건설, DL이앤씨 등 건설사 16곳과 건원, 도화 등 엔지니어링 17곳 관계자, GH 사업지구 현장소장 23명이 참석했다.

GH는 환경을 생각하고 새로운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한 4대 기회가치로 공정·인권·혁신·품질을 설정하고 10가지 실천과제를 마련, 건설 파트너와 실행을 다짐하는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4대 기회가치를 손꼽은 아나운서와 토크 콘서트 형식의 대담으로 풀어냈다.

우선 ‘공정’ 부문에서 입찰평가 전문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설계공모위원회 도입, 평가위원 구성기준 강화, 평가과정 실시간 공개를 제시했다.

‘인권’ 부문은 건설근로자 권익보호, 중

‘품질’ 부문은 난방비 급등, 층간소음, 홈네트워크 해킹 등 공동주택 품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품질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SOS품질점검단 운영 등을 통해 품질을 강화한다.

앞서 지난해 6월 GH는 AI·IoT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안전관제시스템을 도입했는데 3개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92% 급감하는 성과를 얻었다.

또 지난해 최초 제정한 ‘건설공사 안전비용 집행 및 정산지침’은 올해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GH는 예상하고 있다.

김 사장은 “도민 신뢰와 인권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는 시대적 흐름을 맞추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지금은 스마트 혁신기술과 탄소제로 에너지건축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GH는 건설기술 분야 회사를 넘어 신개념 도시개발을 담당하는 타운 매니지먼트로 발돋움 하겠다”며 “경기도의 대표 공공기관으로 스마트한 기술을 선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태현 기자

## 임태희 만난 임종성, 신현중학교 과밀 해소 요청

(광주)

임종성 국회의원(민주·광주)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신현중학교 과밀학급 해소·오포고등학교(가칭) 개교 후 신현중 졸업생



임종성 국회의원(민주·광주)은 지난 1일 경기도교육청 서울사무소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신현중학교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 현안에 대한 도교육청의 협력을 요청했다. 임종성 의원실 제공

**교육현안 관련 도교육청 협력·지원 건의**  
2027년 신규 중학교 개교 이전까지 분당 소재 중학교에 공동 배정해야  
교육감 “통학여건 고려해 적극 지원”

의 분당 소재 고교 배정 등을 적극 건의했다.

임 의원은 지난달 31일 경기도교육청 서울사무소에서 임 교육감을 만나 이같은 내용의 지역 교육 현안과 관련해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임 의원은 임 교육감에게 “신현중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 추진 중인 신현중학교(가칭) 개교 전까지 중학교 입학생의 경우 신현중과 분당 소재 중학교에 공동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017년 신현중 졸업생의 경우 통학여건을 고려해 분당 소재 고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평준화 지침을 개정할 바 있다.

이에 임 의원은 “신현·능평에서 장거리 통학이 불가피한 오포고 개교 이후에도 신현중 졸업생이 계속해서 분당 소재 고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평준화 지침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MEDI CHECK logo and text: '당신의 건강!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with contact info: 031-250-5800, www.gg.kahp.or.kr and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중진의원(수원) logo.